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시

2024. 1. 17.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줍소서
- 2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 3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큰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 4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 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합소서

후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10장 14~18절

다 같이

-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 16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 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말씀 나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인도자

삿꾼 목자의 특징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양을 내버려 두고 달아남으로써 이리가 마음 놓고 양을 해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참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당한 시간을 양들과 함께 지내면 받게 될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친히 우리의 문을 열어 주며 일일이 양들의 이름을 불러 줍니다. 양들도 그의 음성을 분별하고 나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원어를 중심으로 선한 목자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이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양을 압니다

본문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이름을 일일이 아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삭개오의 이름도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알고'(γινώσκω, 기노스코)는 무엇에 대해 본질적인 지식을 '얻게 되다', 감각적인 느낌으로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에 대응하는 단어로서는 감각 기관을 통해 '분별하다', 마음이나 정신을 통해 '깨닫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다'라는 뜻의 '야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알다'란 단어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 하나와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그 특징을 모두 파악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목자 되신 예수께서 양인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심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했고 (시 139:1-10), 마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했으며 (마6:8), 요한은 성품까지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요 1:47).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 (벨전 5: 4)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높은 권세를 지닌 자가 나를 알고 기억해 주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알고 기억해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그 사랑과 관심을 바로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큰 힘이 더해져 이 땅에서 당당한 자녀로 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과 개인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예쁜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양을 인도합니다

본문16절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다음 그 양들을 우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도하여야'(ἄγω, 아고)는 '붙들다', '끌어가다', '데려오다'란 뜻을 지닙니다. 한편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거기서부터' 혹은 '그때부터'라는 뜻의 (κακείθεν, '카케이덴')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으로 확인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즉시 어떠한 난관도 무릅쓰고 인도해 가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죽음 직전에 있는 자들, 핍박의 길을 걷어가는 자들을 즉시 인도해 생명의 자리로 혹은 사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든 혹은 나약하고 우매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푸른 초장과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이나 개인은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이 우매하고 보잘것 없다고 한탄하거나 결코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인도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귀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받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본문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숨'(ψυχή, 프쉬케)은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생명', 사람의 내적이며 본질적인 생명인 '영혼'등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것으로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예수께서 천하보다 소중한 단 하나뿐인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버림을 말하며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혈의 값으로 주고 사실 정도로 귀하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 뿐 아니라 함께 믿는 이웃 역시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앎과 동시에 또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옛날 선한 목자들이 그 많은 양떼 하나 하나를 기억하고,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며, 또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지키고 구원했듯이, 주님 역시 그러한 깊은 관심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참된 평안과 희락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다같이

- 1 최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은 무엇인가요?
- 2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다짐해 봅시다.

중보기도

믿음의 가정을 위해

다같이

- 1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사랑의 언어로 서로 축복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 2 가정의 모든 관계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도록
- 3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 4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도록

마무리 기도

다같이

선한 목자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